

광주시 청사에 1700㎡ 무궁화동산 조성

3·1운동, 임정수립 100주년 기념...평화의 소녀상 주변에 식재

광주시 청사에 무궁화동산이 조성된다. 광주시는 올해 건국 100년을 기념해 청사 내 '평화의 소녀상' 옆 공간 1700㎡(500여 평) 부지에 무궁화동산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무궁화는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돼 자생하고 있으며 200여 종류에 이를 정도로 다양하다.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 우리 민족의 혼이라고 불렀지만, 일제 강점기에는 천대받고 팔시받는 등 수난을 겪었다.

광주시는 나라꽃 무궁화를 통해 올바른 역사 인식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평화의 소녀상 주변을 식재 장소로 선정했다. 품종은 애국가 영상에 나오는 무궁화 대

표 수종인 자심단 등이다.

형상이 아름다운 2~3m 높이의 100여 그루를 활착이 좋은 가을에 심기로 하고 우수품종을 확보 중이다. 무궁화동산 조성 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성 들여 키운 우수 무궁화도 기증받을 계획이다.

문의는 광주시 회계과 청사관리팀(062-613-3199)으로 하면 된다.

이용섭 시장은 "올해는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다"며 "무궁화동산을 통해 시민들이 무궁화의 의미를 되새기기고, 나라 사랑의 마음을 꽃 피우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 청사에 조성될 무궁화 동산 조감도.

광주시, '2024 세계해부학회 학술대회' 유치

30개국 1000여명 참가

광주시는 세계해부학회가 주최하는 '2024년 제21차 세계해부학회(IFAA) 학술대회'를 유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세계해부학회 학술대회는 5년 주기로 30개 회원국을 중심으로 순회 개최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9부터 11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20회 세계해부학회 학술대회'에서 호수 멜버른과 유치 경쟁에 나서 제안설명과 회원국의 투표결과 개최지로 결정됐다.

"2024년 세계해부학회 학술대회"는 대한해부학회 주관으로 오는 2024년 9월5일부터 9월8일까지 3박4일 간 김대

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30개국 1000여 명 이상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학술대회로, 학술발표, 의료기기 및 시약 전시회, 포스터세션 등이 진행되며 외국 전문가도 400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2024년 세계해부학회 학술대회" 광주 유치를 통해 광주가 세계적인 마이스(MICE·국제회의와 전시회·포상관광 등을 아우르는 유망산업) 개최 도시와 문화관광도시로서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학분야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메디시티 광주의 비전을 세계에 홍보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

여름철 간이 물놀이 시설 수질안전성 검사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 14곳 대상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여름철 물놀이형 수경시설 14곳의 수질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과 지하수 등을 이용해 실내 또는 야외에 설치한 분수, 연못, 폭포 등의 시설물 중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가 가능한 시설이다.

현재 광주지역에는 상무시민공원, 운천호수, 쌍학어린이공원, 우산근린공원 등 공공 및 민간시설에 설치된 물놀이형 수경시설 14개가 운영되고 있다.

대부분 바다 분수시설로, 유아나 어린이들이 물놀이 중 신체접촉과 흡입 등 위생상 문제점에 노출되기 쉬워 철저한 수질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검사 항목은 대장균, 탁도, 잔류

염소, 수소이온 농도(pH) 등 4가지다.

검사 결과 오염물질에 의해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 시설 가동을 즉시 중지 후 소독 또는 청소·용수교체 등 조치하도록 하고, 재검사를 실시해 수질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재가동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종민 먹는물검사과장은 "오염된 물이 유아와 어린이의 피부에 닿거나 입이나 호흡기에 유입될 경우 피부염, 구토, 설사 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면서 "분수시설의 수질관리뿐만 아니라 전염병 및 실사환자 이용 금지, 음식물과 이물질 반입 금지, 반려견 출입 금지 등 이용자 준수사항을 지켜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안전하고 깨끗하게 이용할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일제강점기·광복의 역사현장...광주 100년 한눈에 본다

제74주년 광복절 기념 전시회
17일까지 시청 1층 시민홀
사진·기록물 등 70여점 전시

일제강점기와 광복의 역사현장, 1900년대 광주의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사진 전시회가 열린다.

광주시는 오는 17일까지 시청 1층 시민홀에서 '사진으로 만나는 광주 100년' 전시회를 개최한다.

13일 개막한 이번 전시는 제74주년 광복절을 기념하고 지난 7월부터 운영중인 광주시 시청각자료실 홈페이지(www.gjarchive.kr)를 홍보하기 위해 기획됐다.

전시는 ▲일제강점기 광주 기록물 ▲광주 사람들의 삶과 문화 ▲광주, 도시화의 여정 ▲광주의 사라진 경관과 문화유산 등 4개 분야 70여 점으로 구성된다.



1946년 광주 북구 누문동에서 열린 광복절 기념행사.



1907년 광주교와 수기동 일대 모습.

'일제강점기 광주 기록물'에서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기숙사 전경 등 근교정신대 강제 동원의 가슴 아픈 시대상과 독립운동, 광복과 관련된 사진으로 생생한 역사 현장을 전한다.

'광주 사람들의 삶과 문화'에서는 광주

장터, 조탄보 등 1900년대 광주의 옛 모습과 빨래터, 지게꾼, 결혼식 등 당시 생활문화와 관련된 사진을 전시한다.

'광주, 도시화의 여정'에서는 광주 시가지 전경과 광주역, 무등경기장 등 주요 지역의 변화 과정을 시대별로 감상할 수

있다.

'광주의 사라진 경관과 문화유산'에서는 태봉산, 경양지, 사직공원 수영장, 시민관 등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사라진 명소와 풍물을 소개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남구 공무원 노조 '우리역사 바로알기' 진행

연길·용정 등 역사현장 탐방

광주시 남구청 공무원노동조합이 일본의 과거 행적을 되짚어 보는 우리 역사 바로알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남구청 공무원노조는 "전국에서 'Boycott Japan' 운동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강제 징용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죄와 경제도발이 중단될 때까지 '역사 바로알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역사 바로알기 프로젝트는 역사문화 현장 탐방 형태로 진행된다. 남구청 공무원노조는 지난 9일 영화 '봉오동 전투' 단체 관람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2-5일 중국 연길(연길)과 룡정(용정), 백두산 일대 유적지를 답사하는 역사기행 프로

그램을 추진 중에 있다.

남구노조는 백두산 일대 항일유적지를 둘러보며 올바른 역사의식을 정립하고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 이번 역사기행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안영석 남구청 공무원노조 지부장은 "일본은 역사를 부인하면서 한국인의 인권을 능멸하는 천박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는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의 정신을 되새기고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공유하는 기회다"고 밝혔다.

김병내 구청장도 "일제 잔재와 친일 부역자들의 식민주의적 발상이 청산되는 그날까지 남구청 공직자들이 한마음으로 역사 알리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시 중국문화주간' ... 17~23일 다채로운 행사

5·18광장 체험·홍보관 운영 사진전·노래경연·영화 상영

광주시 차이나센터는 17일부터 23일까지 광주 금남로 5·18민주광장 등 광주 일원에서 제 5회 '광주시 중국문화주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주말인 17일 오후 7시 5·18민주광장 특설무대에서 중국문화주간 선포식을 여는 것으로 행사의 막을 올린다.

이용섭 광주시장, 쉰시엔위 주광주 중국총영사, 광주전남 중국 유학생, 광주시민

들이 선포식에 함께 하며 우의를 다진다.

선포식에 앞서 이날 오후 3시부터 밤 9시30분까지 같은 장소에서는 먹거리-즐거거리 체험관과 홍보관이 운영된다.

시민들은 이 곳에서 한-중 양국의 술과 차 문화, 전통놀이, 공예품 만들기, 전통의상 입어보기, 경극 가면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홍보관에서는 광주시 차이나센터와 주

광주 중국총영사관, 중국유학생회에 대해 서 알아볼 수 있다. 중국요리 경진대회, 명인 초청 음식 만들기도 펼쳐진다.

빛고를 아트페이스에서는 오는 21일 중국어 말하기-한중 노래 경연대회가 열린다. 차이나센터에서는 중국 사진 특별전이 14-23일까지 열리고, 중국영화 특별전도 17-23일까지 개최된다.

광주시 차이나센터는 서구 삼촌동 호남

대 공자학원 내에 자리잡고 있다. 광주시 지원을 받아 한중 교류협력 중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상 1층 325㎡ 규모로, 전시관·정보관·교류센터·강의실을 갖추고 시민들에게 중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문의는 광주시 차이나센터 062-367-6688.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덕남동, 임야 **급매** 장단기 최고 투자 **를** 권

- 992㎡, 지분 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덕남동 산64-21번지)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투자적합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매 - 4500만원

문의. 010-6834-7400